

간호대학생의 전문직 자아개념, 학업적 자기효능감 및 전공만족도 간의 관계

양경미
전남대학교 간호과학연구소

The Relationship among Professional Self-concept, Academic Self-efficacy and Major Satisfaction in Nursing Students

Kyung-Mi Yang
Chonnam Research Institute of Nursing Science

요 약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전문직 자아개념, 학업적 자기효능감 및 전공만족도의 정도를 파악하고 이들 간의 관계를 확인하는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연구대상은 J도의 4년제 간호대학생 137명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자료수집은 2017년 10월 19일부터 23일까지 이루어졌으며, 수집된 자료는 기술통계, 상관분석 및 다중회귀분석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간호대학생의 전문직 자아개념은 학업적 자기효능감($r=.598, p<.001$) 및 전공만족도($r=.598, p<.001$)와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으며, 학업적 자기효능감은 전공만족도($r=.470, p<.001$)와 유의한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간호대학생의 전공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전문직 자아개념($\beta=.479, p<.001$)으로 36.0%의 설명력을 보였다. 본 연구 결과 전문직 자아개념이 전공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요인으로 확인되었으므로 간호학생의 전공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전문직 자아개념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교육내용을 잘 구성하는 교과목과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주제어 : 전문직 자아개념, 학업적 자기효능감, 전공만족도, 간호, 대학생

Abstract This study was conducted to identify the relationships among professional self-concept, academic self-efficacy and major satisfaction in nursing students. Data were collected from 137 nursing students by means of self reported questionnaires about professional self-concept, academic self-efficacy, and major satisfaction from October 19 to 23, 2017. The data was analyzed using descriptive statistics,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s, and multiple regression. There were significant correlations among professional self-concept, academic self-efficacy, and major satisfaction. Predictor that has an effect on major satisfaction was professional self-concept among nursing students. This factor explains thirty-six percentile of total variances of major satisfaction. This study suggests that professional self-concept is positively influenced on major satisfaction. To enhance major satisfaction for nursing students, it is necessary to develop specific course or training program in curriculum for increasing professional self-concept.

Key Words : Professional self-concept, Academic self-efficacy, Major satisfaction, Nursing, University students

Received 2 November 2017, Revised 2 December 2017
Accepted 20 December 2017, Published 28 December 2017
Corresponding Author: Kyung-Mi Yang
(Chonnam Research Institute of Nursing Science)
Email: ganhoyang@naver.com

ISSN: 1738-1916

© The Society of Digital Policy & Management. All rights reserved. This is an open-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3.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우리가 살고 있는 21세기는 고도의 첨단기술이 발전하고 있는 정보화 사회이며, 정보화 사회에서 인재는 스스로 필요한 정보를 찾고 올바르게 해석하고 처리할 수 있는 학습 능력이 요구된다. 그러나 우리나라 대부분의 대학생들은 입시 위주의 주입식 교육에 길들여져 자발적 의사에 따라 선택하고 결정하여 학습하는 능력이 부족하다.

자기효능감은 어떤 행동을 선택하거나 지속하는데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심리적 요인 중의 하나이다[1]. 특히 학업적 자기효능감은 학습자가 학업적 과제의 수행을 위해 필요한 행위를 조직하고 실행해 나가는 자신의 능력에 대해 내리는 판단으로 학습자가 새로운 상황에서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학습하고 수행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원동력이 된다[2]. 학습자의 학습 결과는 학업성취도로 나타나는데 학업적 자기효능감이 일반적 자기효능감보다 학업성취도를 더 잘 예측하고[3], 일반적인 자기효능감이 수행과 성과측면에 적용되어 연구되었지만, 간호교육현장에서는 학업적 자기효능감을 살펴보는 것이 더 가치가 있다[4]. 학업적 자기효능감이 높은 사람은 도전적인 과제를 선택하고, 주어진 과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며, 어려운 일이 닥쳐도 끈기 있게 과제를 지속하게 된다[5].

최근 대학생은 전공을 선택할 때 적성과 장래희망을 충분히 고려하기 보다는 입시 성적에 맞추어 선택하는 경우가 많은데 간호대학생은 의료전문인이 되기 위한 전문지식을 습득하고 임상실습을 통해 실무가로서의 자질을 갖추어야 하며, 국가고시를 거쳐 면허증을 취득해야 하는 과중한 부담을 가지고 있어[6,7] 전공에 대한 만족도가 낮아질 수 있다. Ha[8]는 '전공만족'을 개인이 설정한 진로나 직업에 대한 기준과 비교하여 현재 자신의 전공을 평가하는 판단과정의 산물이라고 정의하고, 대학생의 전공에 대한 만족요인이 외적인 환경 요인보다는 외적 환경을 받아들이는 개인의 만족에 있으며 전공학과에 대한 만족은 대학생활 뿐만 아니라 졸업 후의 진로와 사회생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하였다. 따라서 간호대학생의 학과에 대한 과중한 부담은 전공만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결국 재학 중 전공을 포기하거나 졸업 후

임상현장에 적응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전문직은 높은 수준의 교육을 받고 고도의 지식 및 기술적 차원의 능력을 갖춘 전문인들이 합리성에 근거하여 업무를 수행하면서 중요한 사회적 공헌을 하는 직업인데 간호학이 이에 해당한다[9]. 전문직으로서 간호직은 다양한 지식 및 기술적 차원의 능력을 갖추고 합리성에 근거하여 업무를 수행하며 동시에 고도의 직업윤리 및 전문직관이 요구되는 직업이므로[10], 간호사는 여러 분야의 보건의료 전문인들과 함께 일하는 임상현장에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긍정적인 전문직 자아개념을 확립하는 것이 필요하다[11]. 간호에 대한 전문인으로서의 가치관은 전문직 자아개념으로 표현이 될 수 있으며 전문직 간호사로서 자신의 업무에 대한 느낌과 견해를 간호사의 전문직 자아개념이라고 한다[12]. 간호전문직 자아개념은 간호사 스스로가 자신에 대한 이해와 견해가 긍정적일 때에 생겨나며, 부정적 전문직 자아개념은 전문직 역할 수행에 필수적 요인인 독립성을 방해할 수 있다[11]. 개인의 전문직 자아개념은 공식적인 학교교육 기간과 지속적인 직업생활을 통해 발달하게 되므로[13], 간호학생 시기에 간호교육, 선배간호사 등의 모델을 통해 전문직에 대한 확고한 자아개념이 정립된다면 긍정적인 직업관을 형성할 수 있다[14].

선행연구에서 간호대학생의 전문직 자아개념은 전공만족도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으며[15,16], 학업적 자기효능감[18]과 자기효능감[15,17]도 전공만족도와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자기효능감이 전문직 자아개념의 영향요인으로 확인되었다[19,20].

문헌고찰을 통해 간호대학생의 전문직 자아개념, 학업적 자기효능감, 전공만족도는 상관성이 있는 변수임을 알 수 있으나, 선행연구들은 일부 변수만을 보고하였고, 간호대학생보다는 간호사의 전문직 자아개념, 자기효능감, 직무만족도에 대한 연구가 대부분이었다. 최근 고등교육법 개정안 통과로 2012년부터 전문대학에서 '수업연한 4년제 간호과'를 지정받아 운영되고 있는 시점에서 간호교육의 질적 향상이 더욱 중요하게 되었다. 따라서 연구자는 수업연한 4년제 전문대학 간호대학생의 전문직 자아개념, 학업적 자기효능감 및 전공만족도와의 관계 규명해 보고자 하였으며, 전문직 자아개념과 전공만족도를 파악하기 위해 임상실습경험이 있는 상급생을 대상으로 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간호대학생의 올바른 전문직

자아개념 확립 및 학업적 자기효능감 향상과 전공만족도를 높이는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1.2 연구의 목적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전문직 자아개념, 학업적 자기효능감 및 전공만족도와와의 관계를 규명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 1) 대상자의 전문직 자아개념, 학업적 자기효능감 및 전공만족도를 파악한다.
- 2)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전문직 자아개념, 학업적 자기효능감 및 전공만족도를 파악한다.
- 3) 대상자의 전문직 자아개념, 학업적 자기효능감 및 전공만족도간 상관관계를 파악한다.
- 4) 대상자의 전공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한다.

2. 연구방법

2.1 연구설계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전문직 자아개념, 학업적 자기효능감 및 전공만족도를 파악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 연구이다.

2.2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방법

본 연구의 대상자는 J도에 소재하고 있는 일개 수업연한 4년제 전문대학 간호학과 3~4학년으로 표본수 산출은 G-power 3.1.9 프로그램을 이용하였으며, 유의수준 .05, 효과크기 .15, 검정력 .90, 회귀분석을 위한 예측변수 11개 조건에서 총 131명으로 산출되었으나, 중도탈락의 우려를 고려하여 150명을 목표로 하였다.

자료 수집은 연구를 진행하기에 앞서 연구자 소속 기관의 기관윤리심의위원회(Institutional Review Board)의 승인(IRB No 1040198- 170920-HR-072-02)을 받고, 해당 학교 학과장의 구두허락을 받은 후 2017년 10월 19일부터 23일까지 이루어졌다. 자료수집 방법은 연구자가 연구대상자에게 연구의 목적 및 대상자 선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언제든지 본인의 의사에 따라 연구 참여를 철회할 수 있음 등에 대해 설명하고, 모든 대상자로부터 서

면동의를 받은 후 자가보고 형식으로 구성된 설문지를 이용하여 수집하였다. 최종 수집된 자료는 146부였으나 이 중 성실하게 응답한 137부를 분석에 활용하였다.

2.3 연구도구

2.3.1 전문직 자아개념

전문직 자아개념은 전문직 직업인으로서 자신에 대한 정신적 지각으로, 특히 전문직업인으로서 자신의 업무에 대한 느낌과 견해를 말한다[12]. 본 연구에서 전문직 자아개념 측정도구는 Arthur[12]가 개발한 간호전문직 자아개념 도구(Professional Self- Concept of Nurses Instrument: PSCNI)를 Sohng과 Noh[21]가 번역한 것으로 간호학생의 상황을 고려하여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도구는 총 27문항 Likert형 4점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간호전문직 자아개념이 높음을 의미한다. Sohng과 Noh의 연구에서 Cronbach's α 는 .85였으며, 본 연구에서 Cronbach's α 는 .79였다.

2.3.2 학업적 자기효능감

학업적 자기효능감은 학습자가 학업적 과제의 수행을 위해 필요한 행위를 조직하고 실행해 나가는 자신의 능력에 대해 내리는 판단으로[2], 본 연구에서는 Kim과 Park[3]이 학업적 자기효능감을 측정하기 위해 개발한 총 28문항, Likert 6점 척도의 도구를 사용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자기효능감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도구 개발 당시 Cronbach's α 는 .74~.84였고, 본 연구에서 Cronbach's α 는 .80이었다.

2.3.3 전공만족도

전공 만족이란 개인이 설정한 진로나 직업에 대한 기준과 비교하여 현재 자신이 소속한 학과를 평가하는 판단과정의 산물이다[8]. 본 연구에서는 Illinois 대학에서 개발된 학과평가 조사지(Program Evaluation survey)를 토대로 Ha[8]가 수정 보완한 학과(학부)만족 도구 34개 문항 중 Lee[22]가 전공만족 관련 18문항을 추출한 Likert 5점 척도 도구를 사용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전공만족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Lee의 연구에서 도구의 신뢰도 Chronbach's α 가 .90으로 나타났으며, 본 연구에서 Cronbach's α 는 .91이었다.

2.4 자료분석 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 21.0 for Windows Program으로 분석하였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및 연구변수에 대한 기술통계를 실시하였고, 주요 변수간의 차이는 t-test, ANOVA로 분석하였다.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는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로 검증하였으며, 전공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알아보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3. 연구결과

3.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중 성별은 남자 26명(19.0%), 여자 111명(81.0%)이었고, 평균연령은 24.55세였다. 학년은 3학년이 75명(54.7%), 4학년이 62명(45.3%)이었으며, 종교는 무종교가 70명(51.1%), 기독교가 44명(32.1%) 순이었다. 부모의 양육방식은 민주형이 102명(74.5%)로 가장 많았고, 학업성적은 평점평균 3.0이상 3.5미만이 56명(40.9%), 3.5이상 4.0미만이 55명(40.1%) 순이었다. 간호학과 입학동기는 '적성에 맞아서'라는 응답이 46명(33.6%)으로 가장 많았으며, 자신이 생각하는 교우관계는 '만족한다 또는 매우 만족한다'가 105명(76.7%)이었다 <Table 1>.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Participants (N=137)

Variables	Group	n(%)
Gender	Male	26(19.0)
	Female	111(81.0)
Age (years)	21	4(2.9)
	22	50(36.5)
	23	31(22.6)
	≥24	52(38.0)
Grade	Junior	75(54.7)
	Senior	62(45.3)
Religion	Protestantism	44(32.1)
	Catholicism	15(10.9)
	Budhism	8(5.8)
	No religion	70(51.1)
Parenting style	Authoritarian type	13(9.5)
	Democracy type	102(74.5)
	Liberalism type	22(16.0)
Academic achievement	<3.0	13(9.5)
	3.0 ≤ ~ <3.5	56(40.9)
	3.5 ≤ ~ <4.0	55(40.1)
	4.0 ≤	13(9.5)

Admission motivation	Correspondence to score	1(0.7)
	Suitable to aptitude	46(33.6)
	High employment rate	39(28.5)
	Recommendation	38(27.7)
	Others	13(9.5)
Relationship with friends	Dissatisfied	2(1.4)
	Moderate	30(21.9)
	Satisfied	66(48.2)
	very Satisfied	39(28.5)

3.2 대상자의 전문직 자아개념, 학업적 자기효능감, 전공만족도 정도

대상자의 전문직 자아개념은 4점 만점에 3.02±.33점이었으며, 학업적 자기효능감은 6점 만점에 3.81±.45점, 전공만족도는 5점 만점에 4.01±.47점으로 나타났다 <Table 2>.

<Table 2> Professional Self-concept, Academic Self- efficacy & Major Satisfaction (N=137)

Variables	Range	Min	Max	M±SD
Professional self-concept	1-4	2.26	3.85	3.02±.33
Academic self-efficacy	1-6	2.86	5.32	3.81±.45
Major satisfaction	1-5	2.89	5.00	4.01±.47

3.3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전문직 자아개념, 학업적 자기효능감, 전공만족도의 차이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전문직 자아개념은 학년(t=5.54, p<.05), 간호학과 입학동기(F=2.93, p<.05), 교우관계(F=8.07, p<.00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학업적 자기효능감은 학년 (t=6.50, p<.05), 학업성취도(F=7.29, p<.001), 교우관계(F=8.19, p<.001)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전공만족도는 학년(t=4.09, p<.05), 간호학과 입학동기(F=2.47, p<.05), 교우관계(F=3.39, p<.0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Table 3>.

3.4 대상자의 전문직 자아개념, 학업적 자기효능감 및 전공만족도 간의 상관관계

대상자의 전문직 자아개념은 학업적 자기효능감 (r=.598, p<.001), 전공만족도(r=.598, p<.001)와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으며, 학업적 자기효능감은 전공만족

<Table 3> Professional Self-concept, Academic Self-efficacy & Major Satisfaction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N=137)

Variables	Group	n	Professional Self-concept		Academic Self-efficacy		Major Satisfaction	
			M±SD	t or F(p)	M±SD	t or F(p)	M±SD	t or F(p)
Gender	Male	26	3.07±.25	0.77(.385)	3.87±.39	0.49(.480)	4.10±.50	1.10(.291)
	Female	111	3.01±.34		3.38±.46		3.99±.47	
Age (years)	21	4	3.13±.09	1.07(.363)	4.11±.21	1.98(.112)	4.11±.18	0.39(.761)
	22	50	3.08±.32		3.90±.45		4.06±.46	
	23	31	2.97±.35		3.79±.42		3.95±.42	
	≥24	52	2.99±.33		3.72±.45		4.00±.53	
Grade	Junior	75	3.08±.29	5.54(.020)	3.90±.41	6.50(.012)	4.09±.47	4.09(.045)
	Senior	62	2.95±.35		3.71±.47		3.92±.46	
Religion	Protestantism	44	3.10±.29	1.75(.151)	3.88±.45	0.93(.426)	4.07±.40	0.26(.853)
	Catholicism	15	3.07±.38		3.88±.55		3.99±.55	
	Budhism	8	3.02±.36		3.67±.42		4.02±.55	
	No religion	70	2.96±.33		3.77±.42		3.99±.50	
Parenting style	Authoritarian type	13	2.94±.33	1.23(.297)	3.60±.41	1.60(.208)	3.90±.48	1.29(.273)
	Democracy type	102	3.05±.32		3.84±.43		4.05±.48	
	Liberalism type	22	2.95±.35		3.81±.53		3.90±.42	
Academic achievement	<3.0 ^a	13	2.87±.23	2.12(.101)	3.55±.25	7.29(<.001)	3.74±.49	2.20(.092)
	3.0 ≤ ~ <3.5 ^b	56	3.02±.28		3.72±.39	a,b,c<d	3.99±.46	
	3.5 ≤ ~ <4.0 ^c	55	3.02±.37		3.88±.44		4.06±.47	
	4.0 ≤ ^d	13	3.19±.34		4.23±.55		4.19±.47	
Admission motivation	Correspondence to score	1	2.92±.00	2.93(.023)	4.10±.00	1.30(.279)	4.33±.00	2.47(.048)
	Suitable to aptitude	46	3.15±.30		3.93±.44		4.18±.44	
	High employment rate	39	2.95±.31		3.75±.50		3.94±.50	
	Recommendation	38	2.95±.36		3.76±.41		3.88±.41	
	Others	13	2.98±.28		3.71±.35		4.01±.58	
Relationship with friends	Dissatisfied	2	2.98±.07	8.07(<.001)	3.87±.98	8.19(<.001)	3.77±.23	3.39(.020)
	Moderate	30	2.85±.28		3.60±.37		3.90±.54	
	Satisfied	66	2.99±.31		3.75±.41		3.95±.45	
	very Satisfied	39	3.21±.32		4.08±.43		4.21±.42	

도(r=.470, p<.001)와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4>.

<Table 4> Relationships among Professional Self-concept, Academic Self-efficacy, & Major Satisfaction (N=137)

Variables	Professional self-concept	Academic self-efficacy	Major satisfaction
	r(p)	r(p)	r(p)
Professional self-concept	1		
Academic self-efficacy	.598(<.001)	1	
Major satisfaction	.598(<.001)	.470(<.001)	1

3.5 대상자의 전공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간호대학생 전공만족도의 영향 요인을 확인하기 위해 회귀분석 적합여부를 검토하였다. 종속변수의 자기상관

은 Durbin Watson 지수를 이용하였으며 검정결과는 2.040이므로 자기상관 없이 독립적이다. 독립변수간 다중공선성은 VIF지수를 이용하였으며 지수가 1.065~1.845로 10 미만이므로 다중공선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회귀분석을 실시하기에 적합하였다. 전공만족도를 종속변수로 하고 전공만족도와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인 전문직 자아개념, 학업적 자기효능감을 독립변수로 하였으며 일반적 특성 중 유의한 차이를 보인 학년, 간호학과 입학동기, 교우관계를 포함시켜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회귀분석 결과 전문직 자아개념이 전공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주었다(p<.001). 전문직 자아개념이 높을수록(β=0.479) 전공만족도가 높아지며, 총 설명력은 36.0%이다<Table 5>.

<Table 5> Factors Influencing Major Satisfaction
(N=137)

Variables	B	SE	β	t	p
Professional self-concept	.689	.128	.479	5.40	<.001
Academic self-efficacy	.176	.093	.166	1.89	.161
Grade	-.039	.068	-.040	-0.57	.571
Admission motivation	-.034	.034	-.071	-1.00	.319
Relationship with friends	.005	.048	.008	0.10	.921
R ²	.384				
Adjusted R ²	.360				
F(p)	13.71(<.001)				

4. 논의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전문직 자아개념, 학업적 자기효능감 및 전공만족도를 파악하고 전공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확인하여 전공만족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데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수행되었다.

첫 번째로 본 연구대상자의 전문직 자아개념은 4점 만점에 3.02점으로 나타났다. 이는 임상실습을 마친 3년제 간호학생을 대상으로 한 Seo[11]의 2.70점보다는 더 높았으나, 4년제 전체 간호학생을 대상으로 한 Kim[15]의 3.04점, 3년제 전체 간호학생을 대상으로 한 Jeon[19]의 3.27점 보다는 낮았다. 즉, 본 연구대상자는 임상실습을 경험한 3,4학년생으로 임상실습을 종료한 3학년 간호학생을 조사한 Seo[11]의 연구 보고보다는 높았지만, 1~4학년 전체학생을 조사한 Kim의 연구[15] 그리고 1~3학년 전체학생을 조사한 Jeon의 연구[19]에 비하여 볼 때에 전문직 자아개념 평균점수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간호학생의 수적 증가는 학생들의 임상실습 학습 환경을 양적, 질적으로 열악하게 만들어 임상 현장에서 간호학생의 실습만족도를 저하시킴으로써 결국 전문직 자아개념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전문직 자아개념은 일반적 특성 중에서 '적성이 맞아서 입학하였다'고 응답한 경우와 '교우관계가 매우 만족스럽다'고 응답한 경우에 전문직 자아개념 점수가 높은 경향을 보였다. 이는 Jeon[19]의 결과와 유사하였다. 전문직 자아개념은 전문직업인으로서 자신의 업무에 대한 느낌과 견해[12]를 말하는 것으로 개인의 적성을 고려하여 자

신의 의지로 간호학을 선택한 경우에 보다 높은 전문직 자아개념을 가지게 되는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원만한 교우관계가 학교생활의 만족을 가져옴으로써 전문직 자아개념의 하위개념인 자신감이나 의사소통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사료된다.

두 번째로 본 연구대상자의 학업적 자기효능감은 6점 만점에 3.81점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문대학 전체 간호학생을 대상으로 조사한 Kim과 Park[18]의 3.21점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서로 다른 측정도구를 사용하여 직접 비교는 어려우나 3년제와 4년제 간호학생의 자기효능감을 비교한 Kwak과 Hwang[23]의 연구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업적 자기효능감의 차이를 설명하기에는 비교할 자료가 미흡하여 논의에 어려움이 있다. 학업적 자기효능감은 학습자가 학업적 과제의 수행을 위해 필요한 행위를 조직하고 실행해 나가는 자신의 능력에 대해 내리는 판단으로[11] 학제의 차이보다는 학습자 개인의 특성에 따른 차이가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학업적 자기효능감 향상을 위해서는 개인적 특성을 고려한 교육프로그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학업적 자기효능감은 학년별 그리고 교우관계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나, Kim과 Park [19]의 연구에서는 학업적 자기효능감이 학년별로 유의한 차이가 없어 본 연구 결과와는 다소 상이하였다. 간호학생의 학업적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일치된 결과를 제시할 수 없어 앞으로 더 연구하여 확인해야 할 과제라고 본다.

세 번째로 본 연구대상자의 전공만족도는 5점 만점에 4.01점으로 3년제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한 Jeong과 Shin[24]의 3.79점, 4년제 전체 간호학생을 대상으로 한 Kim[15]의 3.91점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본 연구의 간호대학생은 임상실습을 통하여 자신의 진로나 직업에 대해 좀 더 깊게 생각하게 됨으로써 자신이 속한 학과에 대한 만족도가 조금 더 높은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일반적 특성에 따른 전공만족도는 학년, 간호학과 입학동기, 교우관계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Kim과 Lee [17]의 연구에서 전공만족도는 연령, 입학동기와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나 교우관계와는 유의한 차이가 없어 본 연구 결과와는 다소 상이하였다. 학제나 학년이 전공만족도에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생각되나 전공만족도의 차이가 나타난 이유를 명확히 설명하는 데 어려움이 있으므로 앞

으로 학제별과 학년별로 전공에 대한 성향과 만족에 대한 조사와 지역의 범위 및 대상자를 확대한 반복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의 주요변수간의 관계를 살펴보면, 간호대학생의 전문직 자아개념, 학업적 자기효능감 그리고 전공만족도는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직 자아개념과 학업적 자기효능감의 상관성을 조사한 연구를 찾아볼 수가 없어 직접 비교는 어려우나, 전문직 자아개념과 자기효능감의 관계에서 두 변수 간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15,19,20,23], 전문직 자아개념과 전공만족도와의 관계[16], 학업적 자기효능감과 전공만족도와의 관계[18], 그리고 자기효능감과 전공만족도와의 관계[15,17] 연구들이 변수 간에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여주고 있어 본 연구결과를 지지하였다. 즉 전문직 자아개념과 학업적 자기효능감의 향상이 전공만족도를 높이는 중요한 개념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보아지며, 세 변수를 측정하는 연구보고는 찾을 수가 없었다. 앞으로 전문직 자아개념이나 학업적 자기효능감이 직접적으로 전공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지 전문직 자아개념 혹은 학업적 자기효능감이 매개변인으로 영향을 주어 전공만족을 높이는지에 대한 연구도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마지막으로 간호대학생의 전공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기 위해 자기상관지수인 Durbin Watson 지수와 다중공선성 여부를 확인한 후,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에서 간호대학생의 전공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단일변수로 전문직 자아개념이 36.0%의 설명력을 보였다. 이는 전문직 자아개념이 높을수록 전공만족도가 높아지므로 전문직 자아개념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결론적으로 전문직 자아개념이 전공만족도의 주요 예측요인으로 확인되었으므로, 간호학 전공에 대한 이해와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전문직 자아개념을 바람직하게 형성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본 연구자는 그 전략의 일환으로 인간의 생명을 돌보는 간호사의 가치관 정립과 전문직 자아정체감 확립을 목적으로 그리고 임상적 의사결정과 비판적 사고력을 고양할 목적으로 교과목의 바둑판식 나열보다는 관련 핵심 교육내용과 콘텐츠가 해당교과목 교과과정에 체계적으로 반영되도록 학년별 수준에 적합하게 교육과정을 개선

하도록 권고하는 바이다.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J도에 소개하고 있는 일개 수업연한 4년제 전문대학 간호학과 3~4학년 137명을 대상으로 전문직 자아개념, 학업적 자기효능감 및 전공만족도 관계를 알아보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본 연구결과에서 간호대학생의 전문직 자아개념, 학업적 자기효능감 그리고 전공만족도는 순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간호대학생 전공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전문직 자아개념이었으며 36.0%의 설명력을 보여 전문직 자아개념이 높을수록 전공만족도가 높아진다는 것을 검증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간호대학생의 전문직 자아개념이 전공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이 큰 요인이므로 전문직 자아개념을 증진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REFERENCES

- [1] B. J. Zimmerman, M. Martinez-Pons, "Student differences in self-regulated learning: Relating grade, sex and giftedness to self-efficacy and strategy use",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Vol. 82, pp. 51-59, 1990.
- [2] A. Bandura, "Self-efficacy : Toward a unifying theory of behavioral change", *Psychological Review*, Vol. 84, pp. 191-215, 1977.
- [3] A. Y. Kim, I. Y. Park, "Construction and Validation of Academic Self-Efficacy Scale", *The Journal of Educational Research*, Vol. 39, No. 1, pp. 95-123, 2001.
- [4] K. McLaughlin, M. Moutray, O. T. Muldoon, "The role of personality and self-efficacy in the selection and retention of successful nursing students: A longitudinal study", *Journal of Advanced Nursing*, Vol. 61, No. 2, pp. 211-221, 2007.
- [5] J. A. Lee, "Mediating effect of outcome expectations in the relationship of academic self-efficacy to major adjustment of college students", *Korean Journal*

- of Counseling, Vol. 13, No. 5, pp. 2329-2344, 2012.
- [6] I. A. Shaban, W. A. Khater, L. M. Akhu-Zaheya, "Undergraduate nursing students' stress sources and coping behaviors during their initial period of clinical training: A Jordanian perspective", *Nurse Education in Practice*, Vol. 12, No. 4, pp. 204-209, 2012.
- [7] H. J. Park, I. S. Jang, "Stress, depression, coping styles and satisfaction of clinical practice in nursing students",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Vol. 16, No. 1, pp. 14-23, 2010.
- [8] H. S. Ha, "A Study of Department Satisfaction and School Satisfaction of Undergraduate Students", Unpublished master' thesis, Seoul National University, 2000.
- [9] M. S. Jung, Y. S. Kang, M. H. Go, D. H. Kim, S. Y. Kim, *Introduction to Nursing*, Hyunmosa, 2012.
- [10] D. Weis, M. J. Schank, "Professional values: key to professional development", *Journal of Nursing Professional Nursing*, Vol. 18, No. 5, pp. 271-275, 2002.
- [11] W. H. Seo, "Nursing College Students' Nursing Professional Self-Concept and Their Satisfaction with Clinical Nursing Practicum", Unpublished master' thesis,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2007.
- [12] D. Arthur, "Measurement of the professional self-concept of nurses: Developing a measurement instrument", *Nurse Education Today*, Vol. 15, pp. 328-335, 1995.
- [13] J. W. K. Geiger, J. S. Davit, "Self-image and job satisfaction in varied settings", *Nursing Management*, Vol. 19, No. 12, pp. 50-58, 1989.
- [14] I. S. Park, R. Kim,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Professional Self-Concept and Clinical Competence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Health Service Management*, Vol. 7, No. 4, pp. 105-117, 2013.
- [15] M. S. Kim, "Moderating Effects of Self-Esteem and Self-Efficacy in the Relationship between Professional Self-Concept and Satisfaction in their Major among Nursing Students",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Vol. 17, No. 2, pp. 159-167, 2011.
- [16] Y. M. Kwon, E. J. Yeun, "A Correlation Study on Nursing Professional Values, Department Satisfaction, Sociality, Self-Esteem among Nursing Students", *The Journal of Korean Nursing Administration Academic Society*, Vol. 13, No. 3, pp. 285-292, 2007.
- [17] D. J. Kim, J. S. Lee, "Influence of Ego-Resilience and Self-Efficacy on Satisfaction in major of Nursing Student",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Vol. 20, No. 2, pp. 244-254, 2014.
- [18] S. H. Kim, S. Y. Park, "Factors Influencing on Learning Flow of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 15, pp. 1557-1565, 2014.
- [19] M. K. Jeon, "Factors Influencing Professional Self-Concept among Nursing Students", *The Korean Journal of Health Service Management*, Vol. 7, No. 4, pp. 119-129, 2013.
- [20] N. H. Kim, K. W. Kim, "Self-Efficacy, Self-Concept of Professional Nursing, and Clinical Practice Satisfaction to Clinical Practice Education in Nursing Students", *The Korean Journal of Health Service Management*, Vol. 5, No. 4, pp. 41-51, 2011.
- [21] K. Y. Sohng, C. H. Noh, "An Analytical Study of the Professional Self-Concept of Hospital Nurses in Korea",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Vol. 26, No. 1, pp. 94-106, 1996.
- [22] D. J. Lee, "The relationships among satisfaction in major, gender identity, and gender stereotypes of male nursing students", Unpublished master' thesis, Yonsei University, 2004.
- [23] H. W. Kwak, S. W. Hwang, "A comparative study on interpersonal relationship, self-efficacy, and department satisfaction of students majoring in nursing: focus on a four-year technical college and university",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Vol. 15, No. 2, pp. 239-249, 2017.
- [24] M. H. Jeong, M. A. Shin. "The Relationship between self-esteem and satisfaction in major of nursing students",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Vol. 12, No. 2, pp. 170-177, 2006.

양 경 미(Yang, Kyung Mi)



- 1993년 2월 : 조선대학교 간호학과 (간호학사)
- 2000년 2월 : 조선대학교 간호학과 (간호학석사)
- 2008년 2월 : 가톨릭대학교 간호학과(간호학박사)
- 2005년 3월 ~ 2006년 2월 : 광양보건대학교 간호과 교수
- 2006년 3월 ~ 2010년 2월 : 한려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 2010년 3월 ~ 2017년 8월 : 전남과학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 2017년 9월 ~ 현재 : 전남대학교 간호과학연구소 전임연구원
- 관심분야 : 간호교육
- E-Mail : ganhoyang@naver.com